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장 지 영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격과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 2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성격적 부적응 수준, 성격지각의 차이, 성격특질 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부부의 성격조합별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적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강박성 성격은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반사회성 성격과 경계선 성격은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신경증은 결혼만족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격지각의 차이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지각한 성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자신효과; actor-effect). 부부의 유사성은 의존성과 같은 일부 성격유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별 결혼만족도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박성이 포함되어있는 C군과의 조합에서는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반면, B군과의 조합에서는 비교적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결혼만족도, 성격유사성, 성격장애 진단검사, 성격의 조합, APIM, NEO-FFI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성봉로 410)

Tel : 043-261-2187 E-mail : hstpsy@chungbuk.ac.kr

결혼생활의 만족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Myers & Diener, 1995). 결혼생활의 불만족은 여러 가지 부적응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면역기능의 손상(Kiecolt-Glaser et al., 1993), 신체건강 문제(Burman & Margolin, 1992), 섭식장애(Van den Broucke, Vandereycken, & Norre, 1997), 우울증(Beach & Jones, 2002), 알코올중독(Murphy & O'farrell, 1994)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울과 품행문제를 야기하는 등 가족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Emery & O'Leary, 1982).

결혼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연구에서 결혼의 질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 왔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몇몇 연구에서는 귀인유형(Karney, Bradbury, Fincham, & Sullivan, 1994), 애착유형(Johns & Cunningham, 1996), 신경증(Karney & Bradbury, 1995)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내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로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자료 그리고 자기보고 자료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한계를 비롯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몇몇 연구에서는 부부의 유사성(Glicksohn & Golan, 2001), 애착방식(Tucker & Anders, 1999), 갈등해소 유형(McGlashan, Grilo, Sanislow, Ralevski, Morey, & Gunderson et al., 2005)과 같은 부부의 상호관계, 즉 개인 간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인내적 또는 개인외적 변인 어느 한 쪽만으로 결혼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변인과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부간 상호관계가 부정적인 커플들은 결혼생활에서 더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Karney & Bradbury, 1995),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결국에는 육체적인 공격(Fincham, 2003)으로 연결되든지, 요구철회(Heyman, 2001)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신경증간의 관계에 대한 Karney와 Bradbury(1997)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경증이 결혼만족도에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이나 결혼기간과 같은 변인이 이러한 상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간 다른 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행동은 결국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부부 개개인의 성격 및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점과 같은 두 성격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부부간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특질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성격 5 요인 모델(McCrae & Costa, 1997)에서의 신경증(Neuroticism)과 외향성(Extraversion)이다. 많은 연구에서 신경증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arney & Bradbury, 1997; Barelds, 2005). Kelly와 Conley(1987)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50년 추적연구 결과, 높은 신경증 수준은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높은 이혼율과도 관련되어 있는 반면, 외향성(Extraversion)은 결혼

생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Borwin, Buss, & Shackelford, 1997)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성격특질 수준 또는 성격유형뿐 아니라 성격적인 부적응 또는 성격병리의 수준과 유형에도 연구자들은 관심을 가졌다.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적 부적응과 결혼만족도 간의 부적 상관(Bauserman, Arias, & Craighead, 1995; Coyne, Thompson, & Palmer, 2002; McGlashan et al., 2005)을 발견하였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 수준과 결혼생활 만족도 간에는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McGlashan et al., 2005).

개인의 성격은 환경에 대한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지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결혼생활이 두 사람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보면 결혼만족도는 각 개인의 성격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격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성격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성격만으로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에 의한 것(자기효과; actor effect)과 배우자에 의한 것(배우자효과; partner effect)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기도 한다(Kashy & Kenny, 2000).

결혼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성격특성은 대부분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 사람에 대해 자신이 보고한 성격과 배우자가 보고한 성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outh(2006)의 연구에서 배우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보고한 성격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자신

이 배우자에 대해 보고한 성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남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남편의 성격과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성격에 대한 지각자(보고자)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는 이에 대한 자기 지각 뿐 아니라 배우자 지각을 함께 고려하여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수준의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높은 수준의 신경증인 사람과, 반면, 높은 수준의 외향성인 사람일 경우에는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부부의 성격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주목하였다. 두 사람 간의 성격특성, 유사성 또는 차이는 파트너를 지각하는 방식이나 서로간의 상호작용 또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Bradbury & Fincham, 1988). 부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유사하다(Glicksohn & Golan, 2001). 이러한 성격 유사성은 부부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pstein & Guttman, 1985). 부부의 유사성을 다룬 연구(Allen & Thompson, 1984)에서 특히 성격이 유사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그들의 결혼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부의 성격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쉽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결혼만족도에는 성격 변인 외에도 다른 다양한 변인들이 관여할 뿐 아니라(Karney & Bradbury, 1995), 성격이 다양한 하위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성격의 유사성을 판

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Barelds (2005)의 연구에서 성격특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부의 성격 특성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 성격특성은 다른 변인들과는 다르게 두 사람 간의 그리고 다른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부부의 성격이 유사한 것이 반드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사성의 반대개념으로서의 상보성(complementarity) 또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보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서로 상이한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Winch, 1974).

유사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상보성의 경우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의 연구에서 상보성은 흔히 비유사성으로 대치되어 사용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사성과 비유사성(상보성)은 성격특질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였다(Barelds, 2005; Karney & Bradbury, 1995). 성격특질 별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부부가 각 성격특질에서 수준이 유사하면 유사한 성격으로, 수준의 차이가 크면 유사하지 않은(즉, 상보적인)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격을 유형으로 측정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을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유사하지 않은(즉, 상보적인) 성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성격을 연속변인이 아닌 범주변인으로 측정하고 분류하는 만큼 분류와 분석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의 성격 및 부부의 성격의 유사성/비유사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고, 성격유형과 성격특질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성격유형의 조합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충청 및 서울 지역의 부부 248쌍(49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무선응답이나 고정응답의 경향을 보이거나 결측값이 많은 응답자와 그 배우자 48쌍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피험자는 200쌍(남자 200명, 여자 200명)이었다. 200쌍의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SD=9년, 범위 27 ~ 70세), 이들의 결혼기간은 평균 15년(SD=8년, 범위 1~49년)이었고,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았다(무학 0명, 초졸 7명, 중졸 15명, 고졸 133명, 전문대졸 67명, 대졸 145명, 대학원이상 30명).

측정도구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는 Snyder (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에는 총 160문항, 총 14개의 하위 척도(타당도 척도 2개, 결혼만족도 척도 12개)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보고한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1~.92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0~.96이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하위척도 중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의 문제에 해당되는 4개 척도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서재삼, 황순택(2006)이 성격장애 진단을 위하여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자기보고형 질문들로 변형시킨 것으로, DSM-IV에 기술된 10개의 성격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성격병리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재삼, 황순택(2006)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범위는 .53(강박성) ~ .76(분열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성격을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NEO 인성검사

NEO-FFI(NEO Five Factor Inventory)는 성격 5요인 모델(Big-five Personality Model)의 성격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경임(1995)이 한국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NEO-PI-R 240문항을 Varimax 회전을 실시해서 다섯 요인 각각에 대해 표본 내 부하가 가장 높은 12문항씩 추출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NEO-PI-R의 단축형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범위는 .43(친화성) ~ .81(외향성, 성실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격과 배우자에 대해 지각한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개인이 두 개의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29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하는데 평균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부부가 각각 작성하는 것이므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2~3 주 후에 회수하였다. 이 설문은 연구에 동의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실시되었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은 개인이 아닌 커플이다. 커플에서 얻는 자료는 높은 상관을 가질 수 있다(Kashy & Kenny, 2000). Kashy와 Kenny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분석방안으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자료의 분석은 이 모델에 의거하여 각각 자신효과(Actor-effect, 자신의 성격특성과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와 배우자효과(Partner-effect, 상대방의 성격특성과 자신의 결혼만족도와의 상관)로 분석하였다.

성격의 유사성은 다른 변인들과는 다르게 그 정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격 유사성을 각 검사에서 나타난 성격특성별 점수의 차이를 구하여 그

정도에 따른 차이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지만 (Karney & Bradbury, 1995), 분석의 한계점이 지적되었다(Barelds,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와 같은 분석방법에 추가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을 분류하여 부부의 성격조합별로 나타난 결혼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성격유형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격장애진단검사서 10개의 하위척도로 구분하여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각 유형의 점수로 산출하여 표준점수화(z 점수) 하였다. 이 점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점수로 성격적 부적응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하 성격적 부적응은 전반적인 부적응의 수준이고, 성격유형별 부적응의 정도는 각 성격유형별로 나타나는 부적응의 수준이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검사도구의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성격 부적응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성격 부적응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DSM-IV의 각 성격유형에서의 부적응의 수준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산출하였다(표 2). 자신(actor effect) 및 배우자(partner effect)의 결혼만족도는 강박성(자신 $r=.104, p<.05$; 배우자 $r=.120, p<.05$) 성격과는 정적 상관을, 편집성(자신 $r=-.258, p<.01$; 배우자 $r=-.180, p<.01$) 분열성(자신 $r=-.296,$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변인 | 성별 | M | SD | |
|----------|----------|-------|-------|------|
| 결혼만족도 척도 | 남자 | 50.16 | 7.72 | |
| | 여자 | 47.43 | 8.80 | |
| NEO-FFI | 신경증 | 남자 | 33.23 | 5.90 |
| | | 여자 | 35.56 | 5.54 |
| | 외향성 | 남자 | 40.09 | 6.02 |
| | | 여자 | 39.99 | 5.94 |
| | 개방성 | 남자 | 37.09 | 5.54 |
| | | 여자 | 37.82 | 4.99 |
| | 친화성 | 남자 | 40.25 | 3.82 |
| | | 여자 | 40.74 | 3.32 |
| | 성실성 | 남자 | 43.85 | 5.72 |
| | | 여자 | 42.32 | 5.46 |
| 성격장애진단검사 | 편집성(PN) | 남자 | 2.74 | 0.37 |
| | | 여자 | 2.65 | 0.37 |
| | 분열성(SZ) | 남자 | 2.35 | 0.47 |
| | | 여자 | 2.28 | 0.43 |
| | 분열형(ST) | 남자 | 2.37 | 0.52 |
| | | 여자 | 2.29 | 0.53 |
| | 반사회성(AS) | 남자 | 2.45 | 0.37 |
| | | 여자 | 2.27 | 0.36 |
| | 경계선(BL) | 남자 | 2.53 | 0.40 |
| | | 여자 | 2.44 | 0.41 |
| 연극성(HT) | 남자 | 2.99 | 0.33 | |
| | 여자 | 3.05 | 0.39 | |
| 자기애성(NC) | 남자 | 3.15 | 0.38 | |
| | 여자 | 3.05 | 0.41 | |
| 회피성(AV) | 남자 | 2.68 | 0.41 | |
| | 여자 | 2.79 | 0.45 | |
| 의존성(DP) | 남자 | 2.80 | 0.39 | |
| | 여자 | 2.95 | 0.40 | |
| 강박성(OC) | 남자 | 3.31 | 0.35 | |
| | 여자 | 3.28 | 0.36 | |

주. 결혼만족도 척도와 NEO-FFI 점수는 각 소척도의 총점이며, 성격장애진단검사 점수는 5점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평균값임

표 2. 성격유형별 부적응정도와 자신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간 상관

| 자신의 성격유형 ¹⁾ | 자신의 결혼만족도 (actor effect) |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partner effect) |
|---------------------------|--------------------------------|--------------------------------------|
| 편집성(Paranoid) | -.258** | -.180** |
| 분열성(Schizoid) | -.296** | -.179** |
| 분열형(Schizotypal) | -.244** | -.105* |
| 반사회성(Antisocial) | -.231** | -.253** |
| 경계선(Borderline) | -.299** | -.206** |
| 연극성(Histrionic) | .011 | .036 |
| 자기애성(Narcissistic) | -.055 | -.064 |
| 회피성(Avoidant) | -.217** | -.008 |
| 의존성(Dependent) | -.183** | .029 |
|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 .104* | .120* |

1) 개인이 나타내고 있는 성격의 각 유형별 점수를 측정하여 400명에게서 나타난 유형별 점수와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임

* p<.05, ** p<.01.

$p<.01$; 배우자 $r=-.179, p<.01$), 분열형(자신 $r=-.244, p<.01$; 배우자 $r=-.105, p<.05$), 반사회성(자신 $r=-.231, p<.01$; 배우자 $r=-.253, p<.01$), 경계선(자신 $r=-.299, p<.01$; 배우자 $r=-.206, p<.01$), 회피성(자신 $r=-.217, p<.01$), 의존성(자신 $r=-.183, p<.01$) 성격에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연극성과 자기애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에서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반사회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격에서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보다는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성격 부적응 수준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actor effect). 즉 반사회성 성격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자기애성, 회피성에서 나타난 부적 상관은 성격 부적응 수준이 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박성 성격의 배우자에게서 나타난 정적 상관은 이 성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성격특질과 자신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간 상관

| 성 격 특 질 ¹⁾ | 결혼만족도 | | $t^2)$ |
|------------------------|-----------------------|-------------------------|----------|
| | 자 신 (actor effect) | 배우자 (partner effect) | |
| 신경증(Neuroticism) | -.428** | -.140** | 7.077*** |
| 외향성(Extraversion) | .152** | .191** | 0.874 |
| 개방성(Openness) | .298** | .149** | 3.431*** |
| 친화성(Agreeableness) | .313** | .302** | 0.257 |
| 성실성(Conscientiousness) | .352** | .157** | 4.585*** |

1) NEO 인성검사(이경임, 1995)에서 측정된 성격특질임

2) 두 상관계수 간의 차이검증 t 값임

* p<.05, ** p<.01, *** p<.001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NEO-FFI에서 측정된 성격특질 점수와 결혼만족도 점수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표 3). 이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다섯 개 성격특질은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배우자의 성격특질과 자신의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은 신경증($t=7.077, p<.001$) 개방성($t=3.431, p<.001$), 친화성($t=4.585, p<.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신경증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둘 다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신경증(N)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신 $r =-.428, p<.01$; 배우자 $r = -.140, p <.01$). 반면, 외향성(E; 자신 $r=.298, p<.01$; 배우자 $r=.149, p < .01$), 개방성(O; 자신 $r=.152, p<.01$; 배우자 $r=.191, p<.01$), 친화성(A; 자신 $r=.313, p<.01$; 배우자 $r=.302, p<.01$), 성실성(C; 자신

$r=.352, p<.01$; 배우자 $r=.157, p<.01$) 등은 모두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신 및 배우자가 지각한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 상관

자신이 지각한 성격과 배우자가 지각한 성격이 결혼만족도와 상관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에게 각각 자신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에 대해 실시한 평정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신이 보고한 성격(self-reported)과 배우자가 보고한 성격(partner-reported)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성격특질에서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을 보였다(표 4). 자신에 대해 자신이 보고한 성격과 배우자가 보고한 성격에서 신경증($t=3.157, p<.001$), 외향성($t=1.739, p<.05$), 개방성($t=4.509, p<.001$), 친화성($t=2.451, p<.001$)이

표 4. 자신 및 배우자가 지각한 본인의 성격과 결혼만족도간 상관

| 성격특질 | | 결혼만족도 | $t^{1)}$ |
|------------------------|-------|---------|----------|
| 신경증(Neuroticism) | 자기보고 | -.428** | 3.157*** |
| | 배우자보고 | -.298** | |
| 외향성(Extraversion) | 자기보고 | .152** | 1.739* |
| | 배우자보고 | .229** | |
| 개방성(Openness) | 자기보고 | .298** | 4.509*** |
| | 배우자보고 | .103* | |
| 친화성(Agreeableness) | 자기보고 | .313** | 2.451** |
| | 배우자보고 | .207** | |
| 성실성(Conscientiousness) | 자기보고 | .352** | 1.227 |
| | 배우자보고 | .300** | |

1) 두 상관계수 간의 차이검증 t 값임

* $p<.05$, ** $p<.01$. *** $p<.001$

두 사람의 지각차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자신이 지각한 성격이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격특질별로 신경증 수준은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보고에서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자신 $r=-.428, p<.01$; 배우자 $r=-.298, p<.01$), 그 밖에, 외향성(자신 $r=.298, p<.01$; 배우자 $r=.229, p<.01$), 개방성(자신 $r=.152, p<.01$; 배우자 $r=.103, p<.05$), 친화성(자신 $r=.313, p<.01$; 배우자 $r=.207, p<.01$), 성실성(자신 $r=.352, p<.01$; 배우자 $r=.300, p<.01$)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성격특질에서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을 보였다(표 5). 배우자에 대해 자신이 보고한 성격과 배우자가 보고한 성격에서 신경증($t=5.439, p<.001$), 외향성($t=4.044, p<.001$), 개방성($t=1.944, p<.05$), 친화성($t=2.984, p<.001$), 성실성($t=3.512, p<.001$)

각각 모두 두 사람의 지각차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자신이 지각한 성격이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성격특질에서는 신경증이 자신과 배우자가 보고한 것 모두에게서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자신 $r=-.369, p<.01$; 배우자 $r=-.140, p<.01$), 그 밖에 외향성(자신 $r=.323, p<.01$; 배우자 $r=.149, p<.01$), 개방성(자신 $r=.276, p<.01$; 배우자 $r=.191, p<.01$), 친화성(자신 $r=.425, p<.01$; 배우자 $r=.302, p<.01$), 성실성(자신 $r=.309, p<.01$; 배우자 $r=.157, p<.01$)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부부의 성격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각 성격유형별 점수의 차이(유사성)와 결혼만족도 간의 상

표 5. 자신 및 배우자가 지각한 배우자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간 상관

| 성격특질 | | 결혼만족도 | t^1 |
|------------------------|-------|---------|----------|
| 신경증(Neuroticism) | 자기보고 | -.369** | 5.439*** |
| | 배우자보고 | -.140** | |
| 외향성(Extraversion) | 자기보고 | .323** | 4.044*** |
| | 배우자보고 | .149** | |
| 개방성(Openness) | 자기보고 | .276** | 1.944 * |
| | 배우자보고 | .191** | |
| 친화성(Agreeableness) | 자기보고 | .425** | 2.984*** |
| | 배우자보고 | .302** | |
| 성실성(Conscientiousness) | 자기보고 | .309** | 3.512*** |
| | 배우자보고 | .157* | |

1) 두 상관계수 간의 차이검증 t 값임

* $p<.05$, ** $p<.01$., *** $p<.001$

표 6. 부부의 성격 유사성(차이점수)과 결혼만족도 간 상관

| 성격특성 | 결혼만족도 |
|---------------------------|--------|
| 편집성(Paranoid) | -.148* |
| 분열성(Schizoid) | -.081 |
| 분열형(Schizotypal) | -.088 |
| 반사회성(Antisocial) | -.128 |
| 경계선(Borderline) | -.054 |
| 연극성(Histrionic) | -.053 |
| 자기애성(Narcissistic) | -.135 |
| 회피성(Avoidant) | -.025 |
| 의존성(Dependent) | .050 |
|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 -.073 |
| 부부의 성격의 차이점수합 | -.140* |

* $p < .05$

관을 분석하였다(표 6). 그 결과, 의존성을 제외한 9개 성격유형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증 결과 편집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48, p < .05$). 그러나 부부에게서 측정된 10개의 성격에서의 차이점수를 합한 점수와 결혼만족도와의 상관

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40, p < .05$). 이 결과는 부부가 성격적으로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성격군집 조합별 결혼만족도 비교

부부의 성격조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가지 성격유형 조합별로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군집은 DSM-IV(APA, 1994)에 의거하여, 기괴하고 엉뚱한 면이 특징인 A군(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감정적이고 극적인 면이 특징인 B군(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자기애성),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면이 특징인 C군(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으로 구분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남녀의 집단을 9개의 남녀조합으로 구성한 후 각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표 7, 그림 1). 그 결과, 군집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여자 A군-남자 B군인 조합($M = 220, n = 23, SD = 27$)이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여자 C군-남자 C군인 조합($M = 264, n = 14, SD = 28$)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부의 성격군집 조합별 결혼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 | 여자 | | | | | | | | |
|----------|------------------------|----|----|------------|----|----|------------------------|----|----|
| | A군 | | | B군 | | | C군 | | |
| | M | n | SD | M | n | SD | M | n | SD |
| A군 | 245 | 23 | 27 | 247 | 26 | 28 | 240 | 23 | 30 |
| 남자 B군 | 220^a | 19 | 28 | 244 | 30 | 38 | 250^b | 39 | 36 |
| C군 | 260^b | 15 | 33 | 251 | 11 | 29 | 264^b | 14 | 28 |
| F(8,191) | | | | 2.683** | | | | | |

1) a, b 집단은 평균이 유의하게 다름(Bonferroni 검증)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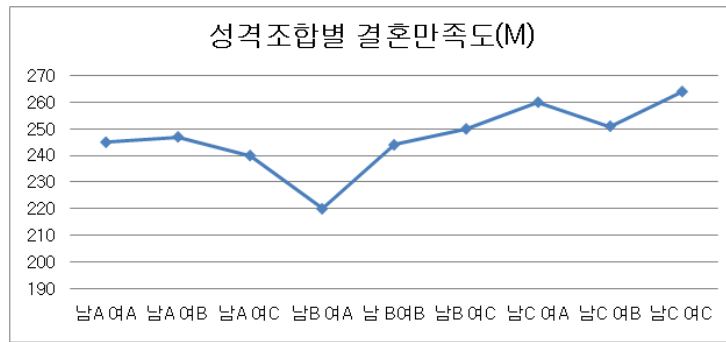


그림 1. 성격조합별 결혼만족도

주) A, B, C는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성격장애 군 집 A, B, C를 각각 지칭함.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특성 및 성격적 부적응의 정도, 부부의 성격 유사성/비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부부의 성격조합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 양측의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59$), 이전의 연구(Barelds, 2005; Karney, Bradbury, Fincham, & Sullivan, 1994)에서 관찰된 상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두 표본이 높은 상관을 가질 경우 나타나는 오류를 통제하고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자신과 배우자 중 어느 쪽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효과(Actor-effect)”와 “배우자효과(Partner-effect)”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효과(Actor-effect)”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부적응의 정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은 대부분의 성격유형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성격적 부적응의 정도가 심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전

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South, 2006). 이전의 연구(Bauserman, Arias, & Craighead, 1995; Coyne, Thompson & Palmer, 2002)는 성격적 부적응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사회성 성격과 경계선 성격과 같은 일부 성격유형에서만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극성(자신 $r=.011$, n.s.; 배우자 $r=.036$, n.s.)과 강박성(자신 $r=.104$, $p<.05$; 배우자 $r=.120$, $p<.05$) 성격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의존성 성격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와는 부적 상관($r=-.183$, $p<.01$)을,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는 정적 상관($r=.029$, n.s.)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박성 성격과, 의존성 성격이 결혼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연구(McGlashan et al., 2005)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정상집단이며, 성격적 부적응이 병리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성격장애 수준은 아니어서 정상집단에서 보이는 특성, 즉 강박성은 성실성 또는 타

인과 부딪치기를 싫어함, 의존성은 자신보다 타인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성 등이 오히려 결혼생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전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또한, 의존성과 같은 일부 성격적인 특성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성격특성에 따라 자신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신경증만이 결혼만족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서 높은 신경증 수준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신경증이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Karney & Bradbury, 1995, 1997; Barelds, 2005)을, 외향성은 정적 상관(Borwin, Buss, & Shackelford, 1997)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부분의 성격특질에서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성격특질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자신의 성격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향성에서만 자신의 결혼만족보다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배우자의 성격특질이 외향성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배우자의 성격특질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보고한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보고한 성격특질 모두에서 본인의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에서도 배우자 스스로 보고한 성격특질보다는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성격특질과 결혼만족도가 더 높

은 상관을 보여 이전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South, 2006). 이는 실제의 성격보다는 자신의 지각형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배우자의 성격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가 보고한 성격특질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것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배우자의 성격은 배우자의 실제 성격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부부의 성격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부의 성격유형별 문항의 점수 차이와 결혼만족도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서 부부의 성격이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이전의 연구(Glicksohn & Golan, 2001; Guttman & Zohar, 1987)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존성 성격에서는 부부간 성격의 점수 차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의존성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하면, 성격유형에 따라 유사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부의 성격 조합별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강박성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의존성이 포함된 C군과 조합된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C군-여A군, 남C군-여C군, 남B군-여C군 조합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반사회성 및 경계선 성격이 포함된 B군과 조합된 경우에는 대부분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남B군-여A군의 조합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B군일 경우일지라도 C군과 조합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결혼만족

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이는 성격이라면,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그렇지 않는 배우자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자신의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성격특성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의 성격조합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자신의 성격이 배우자의 성격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일부 성격유형은 자신의 성격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상대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부의 성격조합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부부의 성격적 결합이 결혼생활의 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 간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결혼 전 커플들에게도 결혼생활의 질을 예견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혼만족도에서 남녀의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을 고려해볼 때, 결혼생활에서의 질은 여성의 삶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표본 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부의 성격조합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좀 더 세분화하지 못하였다. 둘째, 질문지의 응답방법이나 문장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표본에서 제외되어 지적변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었다. 셋째,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성격특성

과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는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집단의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임상 현장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를 포함하여 표본의 대상을 넓힌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보다 세밀하게 구분된 성격조합별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8, 123-139.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5, 273-288.
- 이경임 (1995) 한국인의 NEO-PI-R 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의 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916-921.
- Barelds, D. P. H. (2005). Self and partner personality in intimate relationship. *European*

- Journal of Personality*, 19, 501-518.
- Bauserman, S. A. K., Arias, I. & Craighead, W. E. (1995) Marital attributions in spouses of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7, 231-249.
- Beach, S. R. H., & Jones, D. J. (2002). Marital and family therapy for depression in adults. In I. H. Gotlib & C. L. Hammen(Eds.), *Handbook of Depression* (pp. 422-440). New York: Guilford Press.
- Botwin, M.,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 :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 107-136.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urman, B., & Margolin, G. (1992).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s and health problem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12, 39-63.
- Coyne, J. C., Thompson, R., & Palmer, S. C. (2002). Marital quality, coping with conflict, marital complaints, and affection in couples with a depressed w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26-37.
- Emery, R. E., and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pstein, E., & Guttman, R. (1985). Mate selection in man: evidence, theory, and outcome, *Social Biology*, 31, 243-278.
- Fincham, F. D. (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 and contex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23-27.
- Glicksohn, J. & Golan, H. (2001)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assortative m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199-1209.
- Heyman, R. E. (2001). Observation of couple conflicts: Clinical assessment applications, stubborn truths, and shaky foun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3, 5-35.
- Jones, J. T. and Cunningham, J. D. (1996). Attachment styles and other predictor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3, 387-399.
- Karney, B. R., & Bradbury, I.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and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 - 1092.
- Karney, B. R., Bradbury, T. N., Fincham, F. D., & Sullivan, K. T. (1994). The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413-424.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T. Reis, & C. M. Judd(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pp. 452-4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dis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7 - 40.
- Kiecolt-Glaser, J. K., Malarkey, W. B., Chee, M., Newton, T., Cacioppo, J. T., Mao, H. Y., & Glaser, R. (1993). Negative behavior during marital conflict is associated with immunological down-regulation. *Psychosomatic Medicine*, 55, 395-409.
- McCrae, R. R. (1994). The counterpoint of personality assessment : Self - reports and observer ratings. *Assessment*, 1, 159 - 172.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 509-516.
- McGlashan, T. H., Grilo, C. M., Sanislow, C. A., Ralevski, E., Morey, L. C., & Gunderson, J. G. (2005). Two-year prevalence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SM-IV criteria for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s: Toward a hybrid model of Axis II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883-889.
- Murphy, C. M., & O'Farrell, T. J.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aggression in male alcoholic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321-335.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obins, W. R., Caspi, A., & Moffitt, T. E. (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51-259.
- Robins, W. R., Caspi, A., & Moffitt, T. E. (2002). It's not just who you're with, it's who you are: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experiences across multipl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0, 925-964.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outh, S. C. (2006). *Personality Pathology Assessed by Self-and Other Report: Implication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Conflict*. University of Virginia.
- Tucker, J. S., & Anders, S. L. (1999).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perception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403-412.
- Van den Broucke, S., Vandereycken, W., & Norre, J. (1997). *Eating disorders and marital relationships*. London: Routledge.
- Watson, D., Hubbard, B., & Wiese, D. (2000). General traits of personality and affectivity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elf-and partner-rating. *Journal of Personality*, 63, 413-449.
- Whisman, M. A., Uebelacker, L. A., & Weinstock, L. M. (2004).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830-838.

1 차원고접수 : 2012. 4. 12.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The relationships of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Jang, Ji-Young

Hwang, Soon-tae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Level of personality maladjustment, personality differences of perception, personality traits were analyz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 were found that there was the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by character and the types of personality, and the degree of maladjustment of personal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was related to the highest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antisocial personality was related to the lowest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Also, neuroticism had a negatively strong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In the correlations, the actor-effect has a stronger level of correl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than partner-reported personality does. Overall, the similarity of the couple appeared to be improving marital satisfaction. The set of personalities in which cluster C showed relatively high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set of cluster B showed the lowest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ital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spouse's personality as well as the individual's personality.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similarity of personality,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s, set of personality, APIM, NEO-FFI